

‘경주 선언’ 이끌어낸 李 정부 외교력 대내외 인정

APEC 정상회의 결산

미·중 무역갈등 속 조율 성공
다자간 자유무역 빠졌지만
각료급 공동성명 일부 수호
의장국 중재로 협상타결 견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각종 담판을 성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대내외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관련기사 2·6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내 마련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의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위기에 봉착한 다자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은 지난 1일 정상회의를 마치며 공동합의문인 ‘경주 선언’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국가들은 문안 타결을 위해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내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자유무역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올해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APEC 정상회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수십년간 국제사회가 구축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을

모색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APEC 21개 회원이 전환기의 국제 무역질서를 두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특히 ‘무역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다만 ‘경주 선언’에는 다자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은 담기지 못했다. 미국의 반대 때문이다. 직전 APEC 정상선언까지는 ‘세계 무역기구(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상간 공동선언이 아닌 각료급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정도로 타협했다.

WTO로 상징되는 다자간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주 선언’ 채택 불발의 우려를 딛고, 모든 회원들이 동의하는 결과물을 도출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안을 내놓고 끊임없이 협상한 것이 유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주 선언’에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각료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을 반영해, APEC의 기반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는 점도 의의로 꼽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값 오름세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됐지만
이달부터 10%서 7%로 낮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기름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일부 봉합 기대심대 등이 꼽힌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리터(1)당 1679.74원으로, 전일대비 1.62원(0.1%) 올랐다. 이는 불과 열흘 전인 10월23일(1660.96원)과 비교해 1당 18.78원(1.13%) 상승한 수치다.

또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넉 달여 만에 49.75원(3.05%)이나 올랐

다. 연내에 1700원을 넘어설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31일 1733.57원을 찍은 뒤 3월11일부터 7개월 넘게 1600원대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을 실시해왔는데,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시에도 환원을 계속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재부는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월31일부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치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더 연장했다.

지난달 말까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율 10%가 적용됐다. <6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전방위 해킹 공습... 국가·금융·기업 동시다발 타격

흔들리는 韓 보안체계

6년 새 금융권 해킹 31건
지자체 하루 3.2만건 공격

국가와 금융,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6년 새 30건 넘는 해킹이 발생했고,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엔 하루 3만 건이 넘는 침투 시도가 이어진다. 다크웹에선 이미 3억 건이 넘는 국내의 데이터가 거래 중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 전산장애는 188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보 유출 건수는 5만1000여건, 피해 배상금은 약 2억71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킹 피해는 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6건, 손해보험사 5건, 카드사 4건, 저축은행 3건, 생명보험사 1건 순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저

축은행에서 3만60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사(1만883건), 카드사(3890건), 생보사(2673건), 은행(474건)이 뒤를 이었다.

공격기법별로는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13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보안 취약점 해킹이 각각 7건, 무단 접속 1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전산장애와 해킹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현행 보안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금융당국은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

하고 가이드라인 미준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시스템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하루 평균 3만 2000여건꼴이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887만 건이 탐지돼 전년 수준(1158만 건)을 넘어섰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김민석 총리, 두번째 ‘3+α’ 회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사진 뉴시스

▲오세훈 “소비쿠폰 때문에 부동산 올라” 조국 “소가 웃을 주장”
▲“한국은 돌궐 영토” 해외 교과서 오류에도... 재외공관 안일한 대처

▲군 정찰위성 5호기, 지상교신 성공... “24시간 한반도 감시정찰”
▲한동훈·장혜영, 3일 ‘새벽배송 금지’ 찬반 두고 공개 토론